

수출 10개월째 내리막 속 무역흑자 '최고'

수출 447억불 · 수입 387억불...92개월째 무역흑자 유지

반도체 · 中수출 부진 여전...日수출규제 영향은 제한적

9월 수출이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반도체 단가하락 탓에 두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10개월 연속 내리막인 가운데 다행히 전체 수출물량과 일평균 수출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출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수출입 실적(통관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47억1000만달러, 수입액은 387억4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11.7%, 5.6% 감소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59억7000만달러로 9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9월 무역 흑자액은 올해 들어 가장 높고, 수출 호조 시기였던 지난해 평균 무역수지(58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출은 작년 12월 7.1%를 시작으로 올해 1월(-6.2%), 2월(7.1%), 3월(-8.4%), 4월(-2.1%), 5월(-9.8%), 6월(-13.8%), 7월(-11.0%), 8월(-13.8%)에 이은 10개월 연속 '미이너스' 행진을 보이고 있고, 9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반도체 단가 하락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대(對)중국 수출 감소 등으로 수출 실적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전체 물량은 견조한 증가세(3.1%)를 보이고 있고, 일평균 수출(21.8억달러) 역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며 회복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또 자동차(4.0%), 자동차부품(2.1%), 무선통신(1.1%), 선박(30.9%), 가전(0.4%) 등 주력 수출품목과 이차전지(7.2%), 바이오헬스(25.2%) 등 신(新)수출성장품목이 호조를 보이며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중국(-21.8%)과 미국(-2.2%) 수출은 감소했지만 시장다변화 정책 등에 힘입어 신(新)북방 지역인 CIS(구소련 독립국가연합·41.3%)와 중남미(10.8%), 유럽연합(EU·10.6%)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3개월째 지속 중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규제 3개월째 전체 일본 수입(117.1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적고 실제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8월 기준 우리의 대(對)일본 수출 감소(-6.6%)보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감소폭(-9.4%)이 더 크게 나타나 우리보다 일본이 한일 무역갈등으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산업부는 분석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단가하락 외에도 작년 9월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 기록(124.3억달러)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이 부진했지만 일평균 수출과 무역수지가 올해 최고 기록을 달성하며 수출활력 회복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윤모 장관은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 시장, 품목, 인프라 등 수출 구조 4대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해외마케팅·무역금융 지원 강화는 물론 디지털 무역·서비스 산업 등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10월, 롯데마트 통 큰 한달이 시작된다 1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통 큰 한달 1탄'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통 큰 한달' 행사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총 1000억원 규모의 2000여 개 상품을 선보인다. 그 첫 번째로 열리는 '통 큰 한달' 1탄 행사에서는 수산, 축산, 청과, 주류, 냉동 식품, 주방 용품, 침구, 생필품 등의 다양한 상품이 준비됐다.

뉴스1

상반기 부보예금 1.1% 증가 그쳐

예금보험공사, 저금리로 예금유입 정체

저금리에 따른 장기저축유인 감소 등으로 시중자금의 저축성예금 유입이 정체됨에 따라 전체 부보예금의 증가율이 전분기 말(1.4%) 대비 소폭 하락(1.2%)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보예금이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금융상품 중 정부·금융기관 예금, 법인보험,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등을 제외한 예금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가 1일 발표한 '2019년 6월말 부보예금동향'에 따르면 6월말 전체 부보예금 잔액은 2156조 2000억원이었다.

12월 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약 15조 8000억원(1.2%) 증가했다. 특히 외화예수금은 글로벌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환율 상승 기대감 등에 따른 달러 매수세 등으로 전분기말 대비 6.2% 늘었다.

보험업권의 부보예금(책임준비금) 잔액은 787조 1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1% 증가했으나 보험시장 성장세 정체로 증가율은 둔화추세를 보였다.

저축은행업권과 금융투자업권의 부보예금은 각각 57조 3000억원, 29조 2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뉴스1



서울우유, 제품 표지에 독립운동가 담는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달의 독립운동가 소개문구와 이미지를 제품 표지에 3개월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급식일 기준 일 물량 110만여 개를 생산해 전국 5000여 개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한 2019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13명 중 3명의 대표 인물을 추렸다.

10월에는 안중근 의사, 11월 박은식 선생, 12월은 윤봉길 의사의 소개 문구와 이미지를 적용한다.

정길용 서울우유협동조합 마케팅본부장은 "서울북부보훈지청과 함께 기획한 이번 프로모션은 많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독립운동가들의 업적과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세' 모바일뱅킹

한국은행, 6월말 1.13억계좌 등록 7.8% 증가

총 인터넷뱅킹 고객 수 1.52억명...전기비 4.1% ↑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들이 디지털화에 주력하면서 올해 상반기(1~6월) 국내은행(18개 은행 및 우체국 예금고객) 모바일뱅킹 고객 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7.8% 늘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6월) 기준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는 지난해 말(1억476명) 대비 7.8% 증가한 1억1289만명으로 집계됐다.

모바일뱅킹 고객수는 지난 2017년 6월말 8029만명에서 12월말 8973만명, 지난해 6월말 9782만명으로 증가한 뒤 12월말 처음으로 1억명을 넘어섰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포함한 총 인터넷뱅킹 고객 수는 1억 5262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4.1%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고객 수는 지난 2017년 6월말 1억2704만명에서 같

은해 12월말 1억3504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지난해 6월말 1억4067만명, 12월 말에는 1억4656만명으로 늘었다.

올해 6월말 기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을 통한 조회·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 건수 및 금액(조회서비스 제외)은 지난해 말에 비해 각각 17.5%, 0.2% 증가했다.

모바일뱅킹 일평균 이용실적은 건수 및 금액 기준 각각 15.5%, 10.8% 늘었다.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61.8%, 12.7%이었다.

또 6월말 기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을 통한 입출금 및 자금이체서비스 이용비율은 56.6%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을 통한 조회서비스 이용비율은 88.4%로 집계됐다.

뉴스1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